월간

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MAGAZINE

제551호 05

Contents

Republic of Korea Air Force Magazine

04 **기획**
Adieu! Phantom Ⅱ

08 **공군 박물관 인사이트**
T-6 건국기(국민 성금 헌납기)

10 **특집**
공군 다둥이네를 소개합니다

14 **내 옆의 공군인**
관제의 노하우를 전하다, 상사 최성민·김홍필

18 **그래픽으로 보는 공군**
F-86(Sabre)

20 **Aero Detail**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Ⅰ : F-5

표 지(앞) 편대 비행 중인 F-35(상병 문준혁)
표 지(뒤) 놀이공원에 놀러간 하늘이프렌즈(최수정 작가)
발 행 일 자 2024년 5월 1일(통권 제551호)
발 행 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영수
편 집 인 공군본부 정훈실장 대령 김권희
편 집 감 수 공군본부 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장 중령 김세현
기 획 · 편 집 공군본부 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서현욱, 중사 강지영
전 자 도 서 관 www.afzine.co.kr

디 자 인 · 인 쇄 국방출판지원단(F24040170)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 및 인터뷰는 개인의 견해임을 알려드립니다.

26 **항공우주박물관 답사기**
미국Ⅴ. 샌디에이고Ⅱ

30 **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

38 **식탁 위의 군대 이야기**
커피: 검은 욕망

40 **동서양 그랜드투어**
색의 광학적 혼합: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42 **한 달, 한 권**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이 고민이라면
『인간관계론』

44 **영화로운 나날**
「외계+인」 가장 한국적인 SF 판타지

46 **생각하는 그림**
같은 말에도 번역이 필요합니다

48 **책 읽는 공군**
우리는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가?
(제16전투비행단 공병대대 상병 문웅빈)

49 **공군인의 하루**
환영합니다, 제18전투비행단입니다
(제18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상병 김훈)

50 **편집실입니다**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

51 **마음의 소리**
독자 참여 코너

월간 공군

글·사진 월간 공군 편집실

Adieu! Phantom II

1969년 F-4 팬텀(Phantom) 전투기가 대한민국 공군에 도입되었다. 당시 비행성능은 물론, 공대공·공대지 등 모든 부분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보인 F-4 팬텀은 우리 공군의 주력으로서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켜왔다. F-4 팬텀은 2024년 6월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퇴역하며 이제는 역사 속에 그 발자취와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불멸의 도깨비'라는 별명으로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의 하늘을 지켜준 F-4 팬텀과 안녕을 고하며 월간 『공군』은 F-4 팬텀의 역사를 찾아 떠나는 기획을 준비했다. 그 두 번째 순서로 F-4 팬텀이 우리 공군에 남긴 흔적을 좇으며 F-4 팬텀의 도입 과정과 활약을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F-4 팬텀의 도입

F-4 팬텀이 도입될 당시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은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였다. 북한의 공군력은 대한민국 공군에 비해 수적으로 2배 이상이었으며 성능 면에서도 우수한 전투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더불어, 북한은 전략과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배치된 많은 수의 작전기지는 물론 활주로와 유도로 및 비상착륙도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군은 1966년, 「공군력 증강 5개년 계획서」를 통해 1968년부터 F-4 팬텀 도입을 건의했다. 당시 대한민국의 안보환경은 긴장감이 고조되던 상황이었다. 1968년 발생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과 푸에블로호 납북 사건 등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며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증대되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미국은 1억 불의 군사원조를 약속했고 F-4 팬텀을 최초로 도입할 수 있었다.

F-4 팬텀 도입이 확정된 이후 공군은 이에 대한 제반 준비를 하기 위해 팬텀 도입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실무위원회는 1970년까지 F-4 팬텀의 작전준비태세를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 조종사와 정비사 및 기타 지원요원 선발, 대대 창설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실무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인원들은 미국으로 가 F-4 팬텀 운용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들을 습득했다. 그리고 1969년 8월 29일, 미국에서 교육을 마친 조종사들은 F-4 팬텀을 직접 조종하여 대한민국 공군 대구기지에 도착했다.

팬텀 운용을 위한 미국 교육 인원

F-4 팬텀이 대구기지에 도착한 이후 한미 고위 장성들이 참여한 가운데 F-4 팬텀 인수식이 거행되었다. 김성룡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인수 서명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은 F-4 팬텀 보유국이 되었다.

인수서에 서명하는 김성룡 공군참모총장

F-4 팬텀이 가진 당시의 위용은 대단한 것이었다. 최고속도는 마하 2.5로 시속 3,000km에 이르는 빠른 속력을 가지고 있었음은 물론 타 전투기에 비해 압도적인 무장 탑재량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넓은 활동반경을 가지고 있어서 작전운용의 제약이 적었으며 고성능 레이더와 컴퓨터가 장착되어 있어 악천후 또는 야간에도 정확한 폭탄 투하가 가능했다. 이렇듯 뛰어난 성능을 가진 F-4 팬텀의 도입으로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은 비약적으로 증대될 수 있었다.

F-4 팬텀 전력증강

1969년 9월 23일, 대구기지에 제151전투비행대대가 창설되며 대한민국 공군은 본격적으로 F-4 팬텀을 운용하기 시작한다. 이후 1972년, 공군전력 증강계획에 의거하여 추가적으로 F-4D를 도입했으며 1989년까지 지속적으로 전력을 증강해나간다. 1977년에는 개량형인 F-4E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정찰 임무를 가진 RF-4C 또한 추가적으로 도입하며 F-4 팬텀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기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F-4E

F-4 팬텀의 운용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지가 발현된 사건이 있다. 바로 국민방위성금 모금이다. 국민들은 자주국방을 향한 결의로 모금 운동에 참여하여 163억 원에 이르는 성금을 모금했고 이 중 65억 원을 활용하여 F-4D 5대를 추가적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이는 국민의 성금으로 구입한 최초의 항공기인 T-6에 이어 두 번째로 군용기를 구입한 사례였으며 이 5대의 F-4 팬텀은 '필승편대'로 명명되어 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방위성금 헌납기

F-4 팬텀의 활약상

F-4 팬텀은 55년 동안 수많은 작전에 투입되며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켜왔다. 1975년,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위협 비행을 하던 북한 항공기에 맞서 전투 초계임무를 수행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입한 러시아, 중국, 일본의 항공기에 대한 전술 조치 및 긴급 출동 임무를 수행하는 방공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더불어, 소흑산도와 청사포에서는 간첩선을 격침하며 대한민국을 빈틈없이 지켜냈다.

편대 비행 중인 F-4E

F-4E

퇴역과 미래

F-4E는 대한민국에서 운용한 마지막 F-4 계열 항공기로서 2024년 6월을 끝으로 퇴역하게 된다.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최일선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 공군의 발전과 함께한 F-4 팬텀은 우리 공군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F-4 팬텀과 같은 최신예 전투기를 운용하며 역량을 키운 대한민국 공군은 F-35A 같은 강력한 기종을 운용하고 있으며 한국형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통해 "우리의 전투기로 우리의 하늘을 지키는 시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F-4 팬텀은 이제 대한민국 하늘에서 사라지겠지만 그 흔적과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며 살아있을 것이다. 우리의 기억 속에 죽지 않을 F-4 팬텀이 더 힘차게 날아오르는 대한민국 공군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짓기를 바란다.

편대 비행 중인 F-4E

F-4E의 마지막 엘리펀트 워크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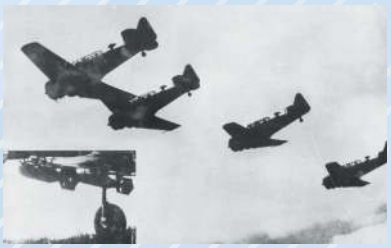
글·사진 월간 공군 편집실
(검수: 공군 박물관)

공군 박물관 인사이트

T-6 건국기(국민 성금 헌납기)

대한민국 공군은 1949년 10월 1일 창군이 된 이후 어느덧 75주년을 향해 가고 있다. 75년의 시간 동안 우리 공군은 수많은 발자취를 남기며 발전해왔다. 특히, 공군사관학교에 위치한 공군 박물관에는 대한민국 공군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많은 문화재들이 있다. '공군 박물관 인사이트'에서는 공군 박물관에 있는 다양한 문화재를 소개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T-6 건국기 명명식


15kg 폭탄을 T-6 항공기에 장착한 모습

T-6 퇴역식

T-6 건국기(국민 성금 헌납기)

두 번째로 소개할 문화재는 T-6 건국기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공군 본부의 전신인 항공사령부는 북한의 공군력 증강을 감안하여 이승만 대통령에게 항공기의 필요성을 건의했고 미국에 원조를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원조 요청은 성사되지 못한다. 이후, 헌납운동의 양상으로 항공기를 구입하기로 하였고 항공기 헌납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우리의 비행기는 우리의 힘으로'라는 기치 아래 공무원부터 기업, 민간인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호응하여 목표액을 훨씬 상회하는 약 3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성금을 모금할 수 있었다. 이 성금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은 캐나다 정부로부터 당시 '베스트 셀러' 훈련기로 알려진 T-6를 10대나 구입하였다. 1950년 5월 14일, 여의도 기지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의 성금으로 구입한 최초의 비행기인 T-6를 '건국기(建國機)'로 명명하였다.

T-6가 건국기로 명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전투기 F-51D가 일본의 미군기지에서 넘어오는 1주일 동안 훈련기인 T-6는 폭탄을 달고 출격하였다. 전쟁 기간 동안 T-6는 274개의 폭탄을 모두 소진하며 전쟁 초기 적의 남하를 저지하는 데 공헌하였으며 전방과 후방을 살피며 연락과 정찰 임무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전쟁 이후, 1962년에 퇴역할 때까지 T-6 항공기는 전투 조종사 양성 임무를 수행하며 약 600여 명의 조종사를 키워냈고 자주 국방의 상징이자 국민의 자부심으로 남게 되었다.

편대 비행하는 T-6

T-6 비행교육을 받고 있는 조종사들

T-6 항공기 정비

공군 박물관 항공기 전시장에 전시된 T-6 건국기

국민 성금 헌납기인 T-6 건국기는 최초의 국민 성금으로 구입한 항공기로 군과 국민의 상호신뢰적 관계를 상징한다. 국민은 자주국방과 강한 공군을 기대하며 성금을 모아주었고 이를 통해 구입한 T-6는 신생국가인 대한민국의 공군력 증대를 위한 디딤돌이 되었다. 특히, 항공기 헌납운동과 공군 창설이 시기적으로 맞물려있는 것은 T-6가 지닌 역사성을 말해주고 있다. 연락기(L-4/5) 12대에 그쳤던 공군이 조만간 신형 항공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은 1949년 10월 1일, 공군이 육군항공대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건국기의 헌납과정은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비행기 헌납운동'과 비교하여도 역사적 가치가 크다. 일제의 강압과 친일파들에 의한 '비행기 헌납운동'과 달리 조국을 위해 자율적으로 진행된 '건국기 헌납운동'은 전 국민이 새로이 세워진 국가인 대한민국의 건국을 확인하고 발전을 기원하는 과정이었다. 국민들의 믿음과 성원으로 우리에게 온 T-6 건국기는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화재이자 국민의 신뢰에 대해 군이 어떻게 보답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다.

글·사진 월간 공군 편집실

공군 다둥이네를 소개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까지 떨어졌다. 이제는 한 명의 자녀를 둔 가정을 찾아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공군에는 3명의 자녀와 함께 다소 북적(?)거리지만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군인 커플이 있다. 바로 제16전투비행단 보급대대장으로 근무 중인 이주헌 소령(학사 128기)과 방공포병학교 운영과장으로 근무 중인 홍연주 소령(학사 128기) 부부가 그 주인공이다. 9년 차 부부이자 동료로서 함께 세 아이의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월간『공군』편집실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동기 커플로 시작했는데, 연애·결혼 스토리

이주헌 소령 저는 장교로 임관하기 전 후보생 때부터 아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위 시절 성남에서 함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아내는 제35비행전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랑 아내의 접점이 '동기'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 없는 동기들을 수소문해서 어떻게든 동기 모임을 만들어가며 만나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먼저 사귀자고 고백한 것은 지금의 아내였습니다. 이후 2년 동안 연애를 하며 서로에 대한 믿음을 쌓아 나갔고 2016년 12월 10일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중인 이주헌·홍연주 소령

서로의 어떤 점이 가장 좋은지?

홍연주 소령 제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일이 생겼을 때, 옆에서 잘 도와주는 모습이 정말 듬직한 것 같습니다. MBTI를 볼 때 판단의 중점을 감정에 두느냐 사고에 두느냐에 따라 F(Feeling)와 T(Thinking)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제 남편은 T와 F로 잘 구분되지 않고 두 요소를 모두 잘 갖춘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 공감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늘 잘 공감해주고 해결이 필요한 순간에는 늘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 같습니다. 공감과 해결책 중 어느 것이 필요할지 정확하게 캐치해서 도움을 주는 모습이 항상 멋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와 개그 코드도 너무 잘 맞아서 비슷한 포인트에서 웃음이 터진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연애 시절 찍은 사진

이주헌 소령 아내가 MBTI 이야기를 했으니 저도 MBTI 이야기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생활양식에 따라 J(Judging)와 P(Perceiving) 유형으로 구분한다고 하며 J의 경우 일을 계획적으로, P의 경우 일을 즉흥적으로 상황에 따라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약간 P 같은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J 성향이 강한 제 아내가 미리미리 계획해주면 전 그것을 잘 따르는 편입니다. 이렇게 제 약점을 커버하고 잘 보완해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현역 장교 부부라서 느끼는 장점과 단점

이주헌 소령 장점은 각자의 분야(보급수송, 인사교육)에서 '대한민국 영공방위'라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며 일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일과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각자가 이룬 성과를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말하며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동일지역 배속에 대한 확실성이 없다 보니 불가피하게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홍연주 소령 저도 남편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업무에 있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비슷하고 직장과 관련한 대화 주제에 서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좋지만 장교의 특성상 한 지역에 오래 머물 수 없어서 가족과 함께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미안하거나 고마웠던 기억은?

이주헌 소령 올해 가장 미안하고 고마운 것 같습니다. 현재 주말 부부라서 평일에는 아내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일과 육아를 병행한 적이 있었는데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휘관의 보직을 맡고 있어서 주말에도 집에 가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이해해주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힘든 상황에서도 내색하지 않는 아내에게 항상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홍연주 소령 제가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정신적으로 많이 지지해주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많이 느낍니다. 매일 매시간 안부도 물어봐주고 애정표현(?)도 아끼지 않고 해줘서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한 최고의 순간은?

이주헌 소령 매 순간순간이 드라마틱하고 소중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집에 있으면 진짜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웃음) 첫째 건희는 뛰어다니고, 둘째 도희는 물통으로 집을 물바다로 만들고, 셋째 준희는 변기의 물을 휘젓고 다니고...(웃음) 일상 자체가 정말 버라이어티합니다. 그래도 최고의 순간을 꼽자면 최근에 포항에 바다를 보러 갔을 때입니다. 막내는 바다를 처음 보는 상황이고 아내와 저 역시도 업무 스트레스가 있던 때라 무작정 바다로 드라이브를 떠났는데 아이들과 아내 모두 너무 좋아해서 그 순간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모두 제가 탯줄을 직접 잘랐는데, 그 순간도 정말 소중한 기억인 것 같습니다.

홍연주 소령 요즘은 주말부부라 다섯 명의 가족이 모두 한 공간에 모이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포항으로 바다를 보러 떠났던 순간이 유독 더 기억에 남아요.

가족 사진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가사 분담은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홍연주 소령 일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을 집까지 가져오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가족들의 기분을 항상 살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유가 있는 날은 제가 하고, 남편이 여유가 있는 날에는 남편이 하는 식으로 상황이 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더 신경 써서 집안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도 이 부분을 항상 너무 잘해줘서 관계가 더 돈독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주헌 소령 공군 같은 경우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과 늘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지휘관분들 덕분에 육아시간과 청원휴가를 잘 나가며 가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부부인지라 주말에 집에 가면 설거지, 빨래, 방 청소, 분리수거 등 다양한 집안일은 주로 제가 하려고 노력합니다.(P.S. 이게 육아보다는 쉬운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것

이주헌/홍연주 소령 저희가 그래도 명색이 공군 장교 부부인데 비행기를 안 탄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했던 것이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던 것입니다. 현재는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상황이 좀 더 여유로워지면 가족 모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보고 싶습니다.

인터뷰 소감과 서로에게 한 마디

이주헌 소령 사실 군 가족 중에도 세 자녀 또는 그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처음 우리 가족이 섭외되었을 때, 민망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소중한 가족들을 공군 식구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살아가면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종종하곤 합니다. 우리 첫째는 '장애'라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 진단 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저 그리고 아내는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생긴 것이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저와 제 가족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공군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는 세 아이의 듬직한 아빠이자 홍연주 소령의 믿음직한 남편 그리고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공군 장교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놀고 있는 아이들 모습

홍연주 소령 현재 둘째, 셋째 동생들도 공군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군에 대한 애정이 더 있었는데, 이렇게 인터뷰도 하면서 가족과 좋은 추억의 한 페이지를 쓴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남의 편 남편이 아닌 항상 제 편인 남편에게 이 자리를 빌려 늘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글·사진 월간 공군 편집실

내 옆의 공군인

제57화

관제의 노하우를 전하다,
상사 최성민·김홍필

안녕하십니까? 월간『공군』구독자 여러분! 저희는 제20전투비행단 운항관제대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최성민·김홍필 상사라고 합니다. 항공과학고등학교를 각각 37기, 41기로 졸업하고 이곳 20전비에서 처음 만난 저희 둘은 관제 지식과 노하우를 묶은 '알쓸실잡'이라는 책을 집필하여 각 비행단에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관제'라는 낯선 분야에 처음 발을 내딛는 후배들이 조금 더 쉽게 관제에 대한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 책을 쓰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후배들이 조금 더 빨리 업무에 적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알쓸실잡(해미편) 책 표지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최성민 상사 원래는 책을 쓸 생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배 관제사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전달해주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후배들을 모니터하며 디브리핑을 통해 직접 관련 규정과 관제 방법 등을 교육할 경우, 조금은 저의 의도와 다르게 교육을 하거나 해줘야 할 말을 다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할 때, 정리된 내용들이 있다면 더 쉽고 빠르게 후배들에게 저의 의중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여기 저의 훌륭한 후배인 김홍필 상사가 책을 같이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하게 되어 집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최성민 상사(우)와 김홍필 상사(좌)

김홍필 상사 관제사로서 막 발을 내딛는 후배 관제사들에게 항공 분야는 굉장히 생소한 분야일 것이라는 생각했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나열되어 읽기 힘든 규정은 안그래도 낯선 이 분야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딱딱한 규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근무하면서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규정을 스토리와 함께 서술하여 후배들이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을 만드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혼자서는 벅찰 수 있는 책 집필을 여기 멋진 선배님인 최성민 상사와 함께해서 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집필의 과정

최성민 상사 2022년 12월, 처음 책을 만들어보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후 20가지의 주제 선정, 내용 전개 방법을 결정하였고 2023년 5월부터 주제별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인 퇴고를 거치며 2024년 2월에 출판을 신청했고 3월에는 드디어 완성된 책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김홍필 상사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과정이 제일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후배들은 어떤 것을 궁금해할까? 규정이 다 담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설명해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등을 고민하며 주제를 선정하고 추려내었습니다.

집필 과정 중 어려웠던 점은?

최성민 상사 저는 항공과학고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4년 동안 위탁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관제사로서 근무를 하며 책이나 글을 많이 접하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공대생인 저에게는 글을 쓰는 일 자체가 대단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가진 생각을 글로 옮겨내는 글솜씨가 부족했던 점이 제일 저를 힘들게 했었습니다.

김홍필 상사 처음 책을 쓰려고 했을 때,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였기에 책을 쓰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책은 내용만 가지고는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책과 관련하여 디자인, 출판, 배포 등의 다양한 과정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 선·후배님들과 국방출판지원단의 도움으로 이 어려움을 잘 해결하여 무사히 책을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책 내·외부 디자인을 도와준 박선우 중사와 이채비 중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중인 최성민 상사(좌)와 김홍필 상사(우)

집필 후 뿌듯함을 느낀 순간

최성민 상사 시작할 때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책에만 매달려도 책을 쓰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물며 제 원래 임무를 수행하며 책을 써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제약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없는 시간을 쪼개가며 김홍필 상사와 작업을 했고 출판된 책을 받아보았을 때의 그 벅참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되는구나'라는 마음이 들고 그동안 함께 고생했던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김홍필 상사 저 역시도 출판된 책을 받았을 때, 뿌듯함과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읽고 도움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더 큰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읽어본 동기, 후배들이 연락해서 저에게 고마움을 전해주었을 때, 저의 노력이 빛을 본 것 같아 뿌듯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군 생활 목표가 있나요?

최성민 상사 관제사에게는 공간지각 능력, 순발력, 판단력 등의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꾸준히 스스로를 단련하고 갈고 닦아 오래오래 마이크를 잡고 직접 관제하는 관제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노력하며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다른 관제사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함께 발전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언젠가 제가 반장과 같이 반을 이끄는 위치가 되었을 때, 반원들이 서로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공군에 좀 더 유연한 조직 문화가 깃들게 하고 싶습니다.

김홍필 상사 저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꾸준히 발전하는 군인이자 관제사가 되고 싶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책을 만든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 중심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위해 저는 글과 책을 늘 가까이하며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더 깊은 생각과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무 수행 중인 최성민 상사(좌)와 김홍필 상사(우)

앞으로 이 책을 읽을 후배 독자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최성민 상사 이 책은 정답을 이야기하는 책은 아닙니다. 후배들이 이 책을 읽고 규정, 관제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야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관제 업무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그리고 진심을 다해 임해주는 후배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김홍필 상사 이 책이 후배들의 모든 갈증을 해소하며 압도적으로 역량을 증진시켜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자에게 '열정'이라는 불꽃이 살아있다면 그곳에 기름을 부어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항공관제 분야가 낯설다는 이유로 후배들의 열정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수 있는 항공관제 분야를 조금이나마 익숙하게 바꿔주는 것이 이 책을 쓴 목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후배들이 도움을 받고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러스트 고봉조 작가
글·사진 월간 공군 편집실

그래픽으로 보는 공군

F-86 SABRE

F-86은 대표적인 1세대 전투기이다. 1950년 12월부터 한국전쟁에 투입되어 최초의 제트기 공중전을 벌이며 MiG-15 전투기에 맞서 인상적인 모습을 선보였다. 대한민국의 경우 1955년부터 도입을 시작하였다. 이후에도 대한민국 공군의 주요 전력으로 하늘을 지키던 F-86은 새롭게 도입된 F-4 등 전투기에 점차 자리를 내어주고 퇴역하였다.

전장	11.4 m
전폭	11.3 m
전고	4.5 m
최대속도	1,106 km/h
무장	12.7 mm M3 중기관총 등

글 임상민 박사(『전투기의 이해』 저자) 사진 Wikipedia

Aero Detail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I : F-5

대한민국 공군의 F-5 도입 역사

국내에서 면허 생산한 KF-5E/F 제공호

대한민국 공군이 F-5 계열 기체를 처음 전력화시킨 것은 1965년부터다. 1965년 4월,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F-5A의 인수식을 거치며, 10전비 제105전투비행대대가 F-5A의 첫 운용대대가 되었다. 이후 10전비 102대대, 11전비 110대대가 창설되면서 F-5A/B 운용대대와 함께 보유량 또한 증가하였다.

1970년대 초, 대한민국 공군 F-5가 남베트남에 제공됨에 따라 기존 F-5A/B의 보유량은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성능이 보다 향상된 F-5E/F 계열 기종의 도입을 1974년에 결정하면서 대한민국 공군의 F-5 계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된다. 10전비 105대대는 F-5E/F로 기종을 전환하면서 F-5A/B에 이어 F-5E/F까지 최초로 운용한 대대가 되었으며, 이후 101대대에도 F-5E/F가 전력화되었다. 1975년, F-5E/F 계열 전투기의 추가 발주에 따라 201대대, 202대대, 203대대, 206대대, 207대대가 창설되었다.

F-5E/F 전투기를 국내에서 면허생산한 KF-5E/F 제공호의 전력화도 1982년부터 시작되었다. 제공호는 201대대, 101대대, 207대대에 배치되어, 기존 F-5E/F 기체들은 103대대, 111대대에서 운용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공군은 정찰형인 RF-5A, 훈련형인 T-38을 포함하여 다양한 F-5 계열의 항공기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대만 공군과 더불어 F-5를 최대 규모로 운용한 공군이었다.

경량 전투기의 걸작, F-5 시리즈

대한민국 공군이 이처럼 대량으로 운용했던 F-5 계열 전투기는 철저하게 경량화를 추구한 전투기라 평가할 수 있다. 대 추력 터보제트 엔진의 등장으로 전투기가 점차 대형화되어 가는 흐름 속에서도 노스롭 사는 경량급 전투기 시장의 성공을 확신하며 자체 자금을 투자해 F-5 전투기를 개발했다.

F-5 계열 전투기 중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1세대 전투기는 F-5A 프리덤 파이터다. F-5A 프리덤 파이터는 1960

년대에 등장해 미국의 동맹 국가를 위해 800대 이상이 생산됐다. 당시, 美 공군은 F-5 급의 경량 전투기에 대한 소요가 없었다. 하지만 초음속 훈련기에 대한 소요는 존재해 파생형인 T-38이 약 1,200대가량 생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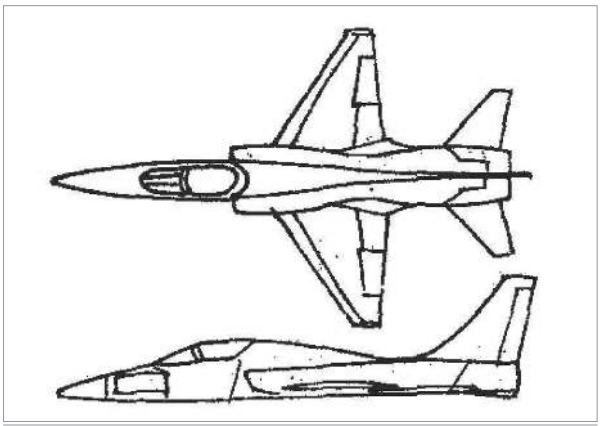
개량형으로 등장한 F-5E 타이거 II는 F-5 계열의 2세대 기체로 구분된다. 미국은 타이거 II를 주로 적성 항공기 훈련용으로 제한된 수를 운용했고, 대부분은 동맹국에서 주력기로 사용됐다. 타이거 II 계열은 총 1,400여 대가 생산되었고, 1987년에 모든 생산이 종료됐다. 타이거 II는 정찰형 버전인 RF-5E 타이거 아이(eye)로 파생되기도 했다.

이후 초기에 F-5G로 명명된 F-20 전투기는 3세대로 구분될 수 있지만 시제기 단계에서 개발이 종료됐다.

N-156의 탄생

1950년대 중반, 노스롭 사는 정비 소요가 적고,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경량 전투기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N-156 기종을 연구했다. N-156은 당시 美 해군의 소형 항공모함에서 운용하기에 적합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그러나 美 해군은 소형 항공모함을 모두 퇴역시키기로 결정해 N-156에 대한 美 해군의 소요는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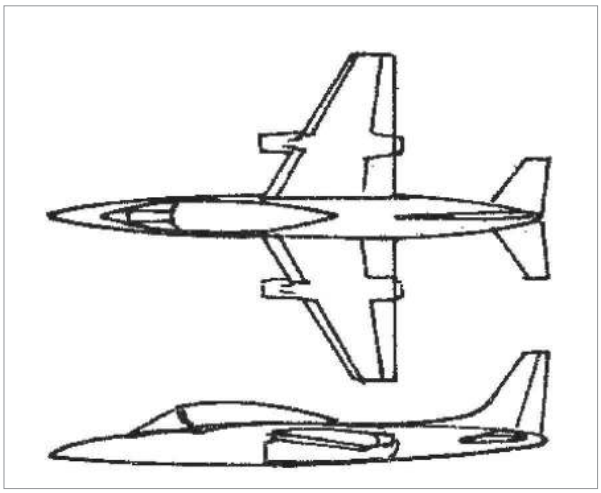
노스롭 사는 美 해군을 포기하고, 美 공군의 소요에 주목했다. 노스롭 사는 美 공군의 소요에 맞게 N-156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복좌형 고등훈련기(N-156T)와 단좌 전투기(N-156F)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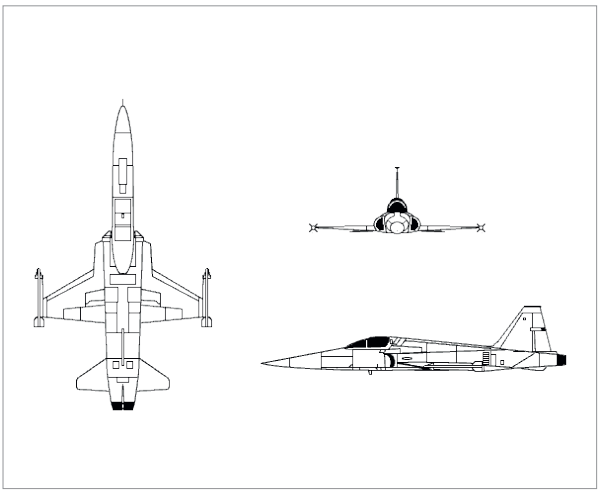
초기 설계단계의 N-156F

N-156은 제너럴 일렉트릭 사의 J85 엔진의 후기연소기 버전을 쌍발로 장착했다. 이 엔진은 원래 B-52 폭격기에 탑재되는 ADM-20 퀘일 기만기에 탑재될 목적으로 설계됐다. ADM-20은 B-52와 유사하게 전파를 반사해 적이 B-52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기만용 비행체였다. ADM-20 용으로 개발된 J85 엔진은 크기가 매우 작으면서도 높은 추력 대 중량비를 가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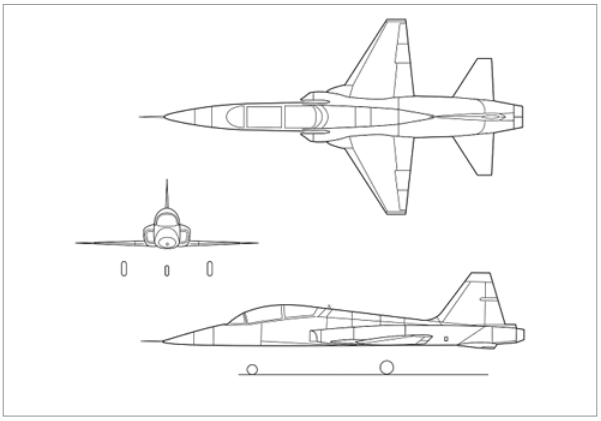
美 공군은 대형 전투기에 관심이 많아 N-156을 자국 공군의 전투기로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N-156을 훈련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당시 美 공군은 고성능의 초음속 대형 전투기를 배치시키고 있어 고성능 훈련기가 필요했다. 美 공군이 기존에 운용하던 고등훈련기 T-33은 F-80 아음속 전투기를 훈련기로 만든 버전으로 여러모로 성능이 부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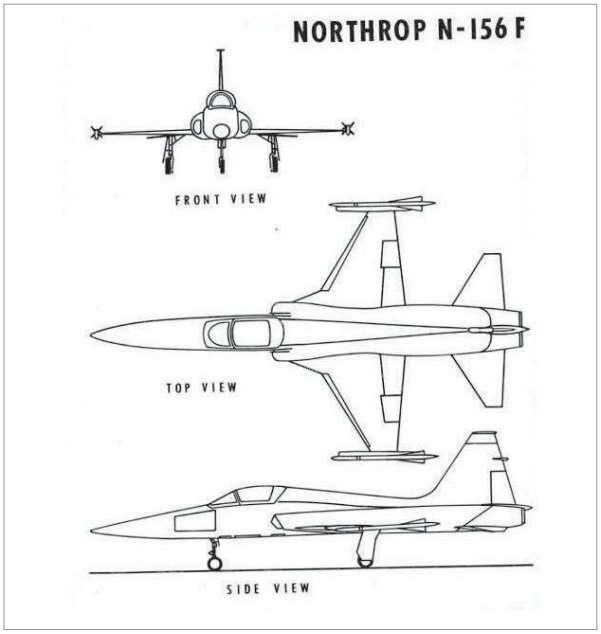
N-156 상면, 측면도



초기 설계단계의 N-156F



T-38 훈련기 삼면도



F-5A와 유사한 후기 설계단계의 N-156F

고등훈련기형 N-156T는 1956년 7월, 美 공군의 차기 훈련기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훈련기 개발이 본격화됐고, 첫 시제기인 YT-38이 1959년 6월 12일 초도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T-38 훈련기는 1972년 1월까지 총 1,158대가 생산됐다.

전투기형 N-156F는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군사원조 프로그램(Military Assistance Program)의 대상 기종으로 가능성을 보였다. 1958년 2월, 노스롭 사는 美 공군으로부터 3대의 시제기 주문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N-156F 시제기는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1959년 7월 선보인 초도비행에서 음속을 돌파했다.

자유의 투사, F-5A

시제기의 초도비행은 성공했지만 F-5A에 대한 양산기 발주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순한 구조로 높은 신뢰성을 보였고, 美 공군의 F-100 슈퍼 세이버 전투기보다 우수한 대지공격 능력을 갖추었지만 美 공군은 F-5A에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F-5A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은 美 육군이었다. 美 육군은 근접항공지원과 정찰 임무를 수행할 고정익기를 찾고 있었다. 美 육군은 1961년에 F-5A뿐만 아니라 A-4 스카이호크, 유럽의 G.91을 대상 기종으로 정하고 성능을 평가했다. 하지만 고정익기는 美 공군이 운용한다는 군의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美 육군은 F-5A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1962년에 들어서자 케네디 정부는 우방국들에 대한 수출용 전투기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1962년 4월, 수출용 전투기로 F-5A를 최종 선정했고, 1962년 10월에 양산계약을 체결했다.

F-5A는 1972년까지 총 636대(YF-5A 시제기 포함)가 생산됐다. 복좌형인 F-5B도 200대가 생산됐다. F-5B는 기수에 기총이 제거됐지만 나머지 무장능력은 단좌형과 같았다. 기수에 정찰용 카메라 4기를 탑재한 정찰형 RF-5A도 86대가 생산됐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캐나다가 240대, 스페인이 70대를 면허생산했다.

베트남에서의 활약과 F-5C/D 스코시 타이거

F-5A/B는 미국의 대외 군사원조를 위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美 공군은 우방국 조종사 훈련을 위한 F-5A 17대, F-5B 15대만을 보유했다. 그러나 베트남전이 격화되면서 美 공군은 실전에서 경전투기의 활용이 필요함을 느꼈다. 이에 따라 美 본토 애리조나주 윌리엄즈 기지에서는 임시로 제4503 전투비행대대가 창설되어 F-5A 12대가 배속됐다. 이 비행대대는 1965년 10월부터 베트남의 비엔호아 기지에 파견되어 작전을 시작했다.

美 공군이 운용한 F-5A/B형은 몇 가지 美 공군의 요구사

항을 반영하여 F-5C/D로 명명됐다. F-5C/D는 부족한 항속거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공중급유 프로브와 추가 장갑, 신형 조준기 등이 추가됐다. F-5C/D를 운용하는 제4503 비행대대는 일명 '스코시 타이거(Skoshi Tiger)'로 유명해졌고, F-5C/D도 스코시 타이거로 불렸다.

반년간에 걸친 실전 평가에서 스코시 타이거는 약 3,500회를 출격했다. 평가 결과는 성공적으로, 대지공격 능력은 오히려 F-104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F-5C/D는 공중에서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美 공군은 F-5의 근거리 근접항공지원 능력에 주목했다. F-5C/D는 500 파운드 또는 750 파운드 폭탄 4발을 탑재할 수 있어서 F-100이나 F-104에 성능이 뒤지지 않았고, 전쟁 중 대공화기에 2대만 손실될 정도로 우수한 생존능력까지 갖추었음을 증명했다.

장거리 폭격능력까지 시험해보기 위해 임시로 비엔호아 기지에서 다낭 기지로 전개해 북폭에도 참여했다. 하지만 이러한 임무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평가를 마친 후에도 F-5C/D는 베트남 지역에 그대로 남았고, 1967년 5월에는 美 공군 소유 F-5A를 모두 남베트남 공군에 공여했다. 그리고 1972년에는 이란, 대만, 한국 등에서 F-5A를 더 차출해 남베트남 공군의 F-5A/B는 126대로 증강됐다.

베트남전에서 F-5A/B의 활약은 경량의 소형 전투기로서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다. 하지만 항속 성능과 무장량의 한계가 있었고, 레이더가 없어 전천후 작전능력이 결여된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단점은 F-5E/F 개발에 반영되어 더욱 향상된 성능의 개량 버전을 만들게 된다.

F-5E/F 타이거 II로의 발전

1960년대 구소련은 마하 2급의 MiG-21을 공산권 국가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F-5A보다 성능이 향상된 수출용 전투기를 우방국에 배치하고자 했다. IFA(International Fighter Aircraft)로 명명된 수출용 전투기 사업의 대상 기종으로 선정된 것은 F-5A-21 기종이었다. 훗날 F-5E 타이거 II로 재명명된 F-5A-21은 F-5A의 엔진보다 강력한 J85-GE-21 엔진을 탑재했다.

F-5A에는 레이더가 없었지만 F-5E에는 AN/APQ-153 레이더가 탑재됐다. 엔진과 레이더뿐만 아니라 동체가 길어지면서 연료도 더 탑재할 수 있었고, 날개-동체 연장

美 공군이 실전에서의 성능평가를 위해 반년간 운용한 F-5C 스코시 타이거

부에는 기동 성능 향상을 위해 LEX(Leading Edge Extension)[1]를 설치했다.

F-5A에 비해 공중전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F-5E의 첫 기체는 1972년 8월 날아올랐다. F-5E를 복좌화한 F-5F는 1974년 9월 첫 비행을 했다. F-5A의 복좌형 F-5B에는 기총이 제거됐던 반면 F-5F에는 M39 기총 1문이 장착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AN/APQ-157 레이더도 탑재되었기 때문에 F-5F는 단좌형에 준하는 전투능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기수에 레이더와 기총 대신에 카메라 패키지를 장착한 RF-5E 타이거 아이 정찰기도 RF-5A와 유사한 방식으로 등장했다.

노스롭 사는 F-5E 792대, F-5F 140대, RF-5E 12대를 생산했다. 미국 외의 현지 생산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말레이시아 61대, 스위스 91대, 대만 308대, 한국도 타이거 II를 면허생산했다. F-5E는 미국의 동맹국을 원조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미국 내에서도 적성 항공기 훈련용으로 사용되었다.

이스라엘제 EL/M-2032 레이더를 탑재한 칠레 공군의 F-5E/F 타이거 II

싱가폴의 F-5S는 사거리가 긴 AIM-120 암람 미사일 운용을 위해 그리포-F 레이더를 탑재했다.

1) 항공기 날개의 에어포일이 앞부분을 확대함

브라질의 F-5M은 그리포 레이더를 탑재하고, 조종석을 업그레이드했다.

F-5 계열 최종형, F-20 타이거 샤크

1968년 당시 美 공군에 쇼크로 다가온 MiG-23, MiG-25, Su-15와 같은 소련 신형 전투기의 등장은 미국이 F-15와 F-14 전투기 개발에 착수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미국의 중소 우방국은 미국의 대외정책상 이러한 고성능 전투기를 도입할 수 없었다. 미국은 우방국에 F-5A를 개량한 F-5E를 제공했지만 성능 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노스롭 사는 1974년부터 구소련의 신형 전투기를 성능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F-5X형 개발에 착수했다. F-5X에는 단발과 쌍발을 포함한 25가지 형상이 검토됐다. 1977년에는 F-4 팬텀 전투기가 사용하던 J79 엔진을 단발로 탑재하는 것이 검토됐지만 엔진이 무거워 큰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없었다. 노스롭 사는 1978년에 F/A-18 전투기용 F404 엔진을 F-5X에 탑재하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엔진 교체로 인해 F-5G의 추력은 기존형 F-5E에 비해 1.6배 증가한 반면 연료소비량은 오히려 9% 감소하여 기동성과 전투행동반경, 무장탑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게다가 긴급출격 경보 후 52초 만에 브레이크를 풀고 활주로를 이륙하는 경전투기 특유의 스크램블 성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F-5G의 미래는 장밋빛으로 보였다.

노드롭 사는 1981년부터 F-5G 시제기 제작에 착수했다. 그러나 복병이 등장했다. F-16에 J79 엔진을 탑재한 다

운 그레이드형 F-16/79 모델이 등장한 것이다. 뜻하지 않는 복병과 함께 F-5G가 맞이하게 된 최대의 고비는 새로이 출범한 레이건 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한다는 결정이었다. 당시 대만은 F-5G 개발의 강력한 후원자이자 수요자였다. 따라서 이 결정으로 인해 노스롭 사는 F-5G의 판로가 막혀버림과 동시에 개발비마저 모두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스롭 사는 해외 수출에서 F-16/79와 동등하게 경쟁하기 위해 F-5G의 명칭 변경을 고려하게 된다. F-5G라는 명칭은 노스롭 사가 고성능을 감추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명칭이었기 때문에 대만 판매가 좌절된 이상 F-5 명칭을 고집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하여 노스롭 사는 1982년 11월, 일련번호 19번을 건너뛰고 F-20라는 새로운 명칭을 美 공군으로부터 부여받고 본격적인 판매 활동에 나섰다.

F-20은 시계 외(Beyond Visual Range)[2] 교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레이더를 AN/APG-67로 변경했다. 중거리 미사일로는 AIM-7F 스패로우를 2발 탑재하고, 정밀유도무기와 공대함 미사일 운용능력까지 갖추어 美 우방국의 주력 전투기로 운용하는 것에도 손색이 없도록 했다.

노스롭 사는 대만과 더불어 F-20 판매 대상국으로 한국을 주목했다. 그러나 1984년 10월 실시한 데모 비행에서 시제기가 추락했고, 파리 에어쇼 연습을 하던 시제 2호기마저 1985년에 추락하여 노스롭 사는 그동안 구축해온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경전투기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던 F-20은 정치적인 환경변화와 시험기체의 추락 등 연속적인 불운으로 결국 양산에 실패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진 비운의 전투기가 되었다.

AGM-65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F-20 타이거 샤크

2) 공중전의 한 갈래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의 바깥 또는 지구의 둥근 부분 뒤쪽으로 들어가는 구역

임상민 박사

한국항공대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연구 및 개발을 맡았으며, 현재는 방위사업청 항공분야 전문관으로 항공무기 획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투기의 이해』, 『항공기 체계효과도의 이해』 등 8권 저술, 1993년부터 항공/군사지, 항공/군사학회 등에 수백여 편의 원고 및 논문을 기고했다.

글·사진 신종태 교수

미국 V. 샌디에이고 II

1800년대 초 샌디에이고(San Diego)는 멕시코인과 미국인들이 뒤섞여 사는 한산한 촌락이었다. 시내 중심가에서 전철을 타고 북쪽으로 30여 분 달리면 역사 보존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올드 타운(Old Town)이 나온다. 서부 개척시대의 옛 건물이 듬성듬성 남아 있는 광장 한가운데 당시 美 기병대가 세웠던 국기 게양대의 모습은 특히 인상적이다. 올드 타운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신나는 음악축제가 열리고 다양한 전통음식이 있는 재래시장이다. 멕시코와의 국경과 가까이 위치한 샌디에이고에는 세계 각국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자 미국으로 건너온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 거대한 미국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가져온 이질적인 요소들이 융화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내고 있었다.

샌디에이고 올드 타운 조감도

올드 타운 광장의 국기 게양대

서부 개척사를 보여주는 창고형 역사박물관

올드 타운은 최초 이주민들의 서부 개척시대의 삶을 재현하고 있다. 개척민들의 삶을 보여주는 역사박물관 또한 허름한 옛 창고 속에 있다. 전시품은 척박했던 생활환경과 생소하게 보이는 생활용품들이 주류이다. 말편자를 만드는 대장간, 흰 천막의 포장마차, 쌍권총 등 서부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품들을 모아둔 느낌이다. 박물관 관리인은 카우보이모자를 쓴 '황야의 방랑자' 같은 복장이다. 전시실 곳곳의 빛바랜 흑백사진들은 새로운 삶을 찾아 서쪽으로 몰려오는 개척인과 마차들을 보여준다. 처음 마을이 형성되었을 당시 이곳 주민은 수천 명에 불과했다. 멕시코는 샌디에이고를 자국의 영토로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미국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멕시코 국경선은 샌디에이고 최남단으로 설정되었고, 이 지역은 미국에 통합되었다. 1900년대 초 도시인구는 2만 명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샌디에이고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태평양 전선으로 출진하는 군인들이 모여들면서 훈련소와 병영이 세워졌고, 엄청난 군수품이 항구에 쌓였다. 1930년대 15만 명이었던 인구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33만 명으로 늘어났다.

전통 재래시장의 입구 전경

올드 타운 역사박물관의 옛 마차

서부 개척시대의 마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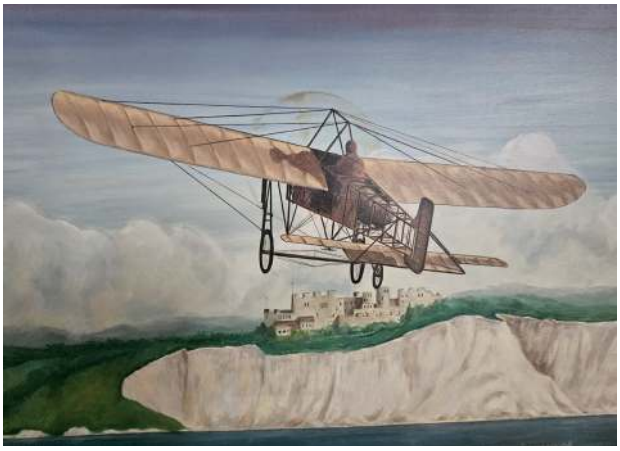
발보아 공원 속의 항공우주박물관

샌디에이고는 항공기 제조업의 본거지로도 유명하다. 1923년에는 콘솔리데이티드 항공(Consolidated Aircraft), 1925년에는 라이언 항공(Ryan Airlines)이 이 도시에서 설립되었다. 약 500만 평의 부지를 가진 발보아 공원(Balboa Park)은 이 도시의 명물이다. 이곳에는 다양한 건축 디자인을 가진 15개의 박물관과 85개의 프로그램을 집약시킨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있다. 이 공원은 1868년, 샌디에이고 시가 50만 평을 공원 부지로 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뒤이어 192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박물관, 극장, 문화센터 건립을 계속해 왔다. 특히 약 100km에 달하는 산책로는 동서남북으로 뻗어 있다. 시민들은 다양한 코스를 따라 산책이나 조깅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공원 내의 항공우주박물관에서는 인류 최초의 항공기부터 최신 우주선에 이르기까지 첨단 과학기술력의 발전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샌디에이고 항공우주박물관 전경

우주를 향한 인류의 끝없는 도전역사

샌디에이고 항공우주박물관(San Diego Air & Space Museum)은 1963년 2월 15일에 탄생했다. 박물관 입구에는 독특한 형태의 SR-71 고공정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1960년, 최초로 비행한 이 정찰기는 역사상 가장 빠른 제트기로 고도 약 25.9km 상공에서 마하 3.3 속도를 낼 수 있는 성능을 가졌다. 박물관 전시실에는 형태도 가지각색인 다양한 항공기들이 가득하다. 1900년대의 초기 항공기로부터 현대전쟁에서 활약한 대부분의 항공기가 모여있다. 한때 미국 조종사들과 사투를 벌였던 독일과 일본의 군용기들도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조종사인 "붉은 남작" 폰 리히트호펜(Von Richthofen)가 탑승했던 삼엽 항공기도 있었다. 독일 포커사가 만든 항공기를 탔던 이 에이스는 연합군 항공기 약 80대를 격추했다. 1927년 5월, 미국인 찰스 린드버그가 최초로 대서양 횡단비행에 성공했는데, 이때 탑승한 항공기를 샌디에이고의 콘솔리데이티드 항공사가 제작했다. 이 항공사는 훗날 아틀라스 로켓을 제작하여 머큐리 유인우주선을 위성 궤도에 쏘아 올렸다. 미국 우주탐사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도 이 박물관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의 역사를 생생하게 재현하면서, 지구로 귀환한 그 우주선의 실물 동체까지 이 박물관에 있었다.



1900년대 초기의 항공기 모습

제1차 세계대전 시 영국군과 독일군 항공기

태평양 전쟁 시 미군과 일본군 항공기

태평양 전쟁시 일본군 특공대원

항공우주박물관의 우주선 모형

귀환한 아폴로 11호 우주선 동체

우주 개척의 희생자를 위한 추모공간

미국의 눈부신 우주 탐험역사의 이면에는 우주인들의 고귀한 희생도 뒤따랐다. 2003년 2월 1일 08:15, 미국의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는 인도양 해상 282km 상공에서 대기권 재진입을 위해 속도를 시속 2만 8,000km까지 줄였다. 그러나 09:00경 텍사스 상공에서 어마어마한 폭발음과 함께 컬럼비아호는 산산조각이 났다. 순식간에 승무원 7명 전원이 목숨을 잃었고, 미국의 전 국민은 슬픔에 잠겼다. 이 박물관에는 컬럼비아호 사건을 추모하기 위한 별도의 전시실도 있었다. 희생자 대부분은 현역 군인들이었고, 이들은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에 추서되었고 미국의 영웅으로 남아있다. 이처럼 미국은 우주 공간의 선점을 위해 엄청난 국가자원을 쏟아붓고 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인 부시 대통령(George W. Bush)은 "그들이 목숨을 바친 대의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우주여행도 계속될 것입니다."라고 연설했다.

7명의 컬럼비아호 순직 우주비행사

신종태 교수

2010년 국내 최초로 충남대에서 군사학박사를 취득했다. 충남대·국군간호사·조선대에서 전쟁사를 강의하면서, 세계 60여 개국의 군사박물관과 전쟁유적지를 답사했다. 현재도 계속 답사여행을 하면서 『세계의 전쟁유적지를 찾아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구성·편집 월간 공군 편집실

사진 상사(진) 박성현(제1전투비행단 정훈실)
중사 박용태(제38전투비행전대 정훈실)
중사 서승현(공군본부 정훈실 공보과)

한미 공군, 연합편대군 종합 훈련

WP
AF
89
074

구성·편집 월간 공군 편집실

사진 중사 박용태(제38전투비행전대 정훈실)

한미 공군, 연합편대군 종합 훈련 실시

한미 공군은 4월 12일(금) ~ 26일(금), 군산 공군기지에서 양국의 군용기 약 100여 대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편대군 종합 훈련을 실시했다. 연합편대군 종합 훈련은 전시를 가정해 공대공, 공대지를 포함한 수송, 정찰 등 다양한 임무에 대한 수행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례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이번 훈련은 한미 공군의 5세대 전투기 자산 통합, 연합 정밀타격능력 향상 등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구성·편집 월간 공군 편집실 **사진** 공군본부 비서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미국 방문

이영수 참모총장은 4월 6일(토) ~ 13일(토) 미국을 공식 방문했다. 미국에 방문한 참모총장은 美 패트릭 우주군 기지와 다양한 민간기업을 찾아 우주 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더불어, 美 우주군이 주관하는 우주 심포지엄과 우주 지휘관 회의에 참석하여 美 우주군 참모총장, 이탈리아 공군 참모총장, 캐나다 공군사령관, 독일 우주사령관과 대담하며 우주 분야 상호 군사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4월 8일(월)(美 동부 현지 시간 기준 4월 7일) 참모총장은 케네디 우주센터를 방문해 우리 군의 군사정찰 위성 2호기 발사를 참관했다.

인도·튀르키예·UAE 군사외교

이영수 참모총장은 3월 17일(일) ~ 27일(수) 인도, 튀르키예, UAE를 공식 방문하여 군사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참모총장은 각국의 군 관련 주요 인사와 접견하며 국방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방안은 물론 각국 공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모총장은 군사외교 기간 동안 6·25 전쟁에 참전한 인도 '제60공수야전병원'을 방문하고, 튀르키예 '한국전쟁 참전 기념탑'을 참배하는 등 해외 보훈 활동도 병행했다.

서울대학교 AI 연구원장 및 서울 AI 허브 센터장 접견

이영수 참모총장은 3월 29일(금) 공군 본부에서 장병탁 서울대학교 AI 연구원장과 박찬진 서울 AI 허브센터장을 접견했다. 이날 공군은 서울대학교 AI 연구원 및 서울 AI 허브센터와 각각 「AI 신기술 분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공군 AI 신기술 융합 센터' 운영 및 성과 창출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구성·편집 월간 공군 편집실 **사진** 각 부대 제공

교육사령부

교육사령부, 부대 개방 행사 실시

교육사령부는 진주시와 함께 3월 30일(토) ~ 31일(일),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부대 개방 행사를 실시했다. 관람객들은 공군 군악대와 의장대 공연, 군견 공연, 솟대놀이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블랙이글스 모형 제작, 군견 산책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가득한 이번 행사를 통해 소중한 사람들과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제1전투비행단

이동형 활주로 조명등 설치 훈련

제1전투비행단은 4월 11일(목), 야간 항공작전 지속능력 향상을 위한 이동형 활주로 조명등 설치 훈련을 실시했다. 이동형 활주로 조명등은 활주로 조명 시설이 점등되지 않는 경우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설치하는 장비로 1전비 작전요원들은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임무수행능력을 증진할 수 있었다.

제5공중기동비행단

국·공·육 합동 화생방 훈련 실시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3월 26일(화), 통합된 전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화생방 공격에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국·공·육 합동 화생방 훈련을 실시했다. 국군화생방방어연구소, 육군제53보병사단과 함께 실시한 이번 훈련을 통해 5비 작전 요원들은 화생방 상황에 대한 합동 대응능력을 함양함은 물론 훈련 간 발생한 미비점들을 통해 작전계획과 수행절차를 보완할 수 있었다.

제16전투비행단

부대 인근 중학생 대상 진로체험 교육 실시

제16전투비행단은 4월 2일(화), 비행단 인근에 위치한 용궁중학교를 찾아 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군의 역할과 다양한 직무에 대해 소개하며 청소년들의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계획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공군과 관련된 다양한 질의를 통해 공군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해소하며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7전투비행단

'24-2차 전투태세훈련

제17전투비행단은 4월 1일(월) ~ 4일(목), '즉시·강력히·끝까지' 대비태세 확립과 전시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24-2차 전투태세훈련(Operation Readiness Exercise)를 실시했다. 17전비 장병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전시 작전능력을 증진함은 물론 복합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제2미사일방어여단

농촌사회 일손 돕기

제2미사일방어여단은 4월 11일(목) ~ 15일(월), 봄을 맞아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대 인근 배 농가를 방문하여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2여단 장병들은 배꽃 인공수분(배 화접) 작업을 도우며 지역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글·사진 노고은 요리연구가

식탁 위의 군대 이야기

커피: 검은 욕망

노고은 요리연구가

요리연구가이자 대한민국조리기능장으로 '세상의 모든 레시피'와 '한국외식관광진흥원'을 운영 중이다. 일상에서 새로운 맛과 경험을 찾는 것을 즐기고,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커피(coffee)의 어원 중 하나는 카파(kaffa)이다. 이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커피나무 자생지의 지명이다. 이 말이 아랍권으로 전파되며 카와(kahweh)로, 유럽으로 건너가 카페(café)로, 영국에서는 커피(coffee)로 불리게 되었다.

커피의 원산지는 에티오피아 고원이다. 커피를 발견하게 된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양치기 소년이 발견했다는 일화이다. 9세기 무렵 에티오피아의 산양치기 '칼디'가 빨간 열매를 먹은 양이 뛰는 것을 보고 자신도 먹었더니 상쾌한 기분이 들어 수도원 원장에게 말을 하였고, 수도원 원장이 열매를 차로 끓여 먹어봤더니 잠을 깨운다는 것을 발견해 이 차를 마시며 수행을 했다는 이야기다.

1554년, 이스탄불에 호화로운 인테리어의 커피 하우스가 문을 열어 사교의 장 역할을 하였다. 커피 하우스 문화는 유럽으로 퍼져 나가며 인기를 얻었다. 일부 성직자들은 커피를 이슬람교도가 먹는 사탄의 음료라고 하며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교황 클레멘스 8세는 커피를 직접 마셔보았고 그 향과 맛에 반하게 된다. 이 훌륭한 음료를 이교도만 마시면 아깝다고 하며 클레멘스 8세는 커피에 세례를 하여 그리스도교의 음료로 만들자고 하였다.

1600년대 중반 이후, 런던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10년 동안 2,000개가 넘는 커피 하우스가 문을 열었다. 1732년에는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바흐가 '커피 칸타타'라는 곡을 작곡하였다. 일종의 커피 하우스 광고 음악이었다. 커피 하우스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닌 다목적 공간으로 우편물 등 업무에 필요한 것들이 갖춰져 있었고, 각계의 정보통과 엘리트들이 최신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였다.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 독립전쟁을 이끈 이들은 중요한 일을 논의할 때마다 커피 하우스에 모여 의견을 나누었다고 한다.

커피는 전쟁의 승리에도 관여했다. 지금의 오스트리아에서 오스만 제국과 함스부르크 제국의 격전이 벌어졌다. 1541년, 오스만 제국군은 오스트리아 빈을 포위했는데 공격과 퇴각 시 마자르 평원에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헝가리의 부다(오늘날 부다페스트의 일부)를 제압해야 했다. 오스만 제국군은 부다의 고위층을 식사에 초대했고, 교섭을 끝내고 돌아가는 부다의 고위층에게 '검은 수프'가 나오니 좀 더 머무를 것을 요청했다. '검은 수프'는 커피였고, 커피가 나오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오스만의 정예부대가 도시에 잠입해 부다를 무장해제 시켰다. 이후 헝가리에서 '검은 수프'는 마지막 순간에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관용어가 되었다.

커피 재배는 서리 내리는 날 없는 연중 온난한 기후와 연간 1,200mm의 강우량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 중 하나가 예멘이었는데, 17세기 전 세계 커피 시장의 유일한 공급원이 바로 예멘이었다. 이슬람권을 넘어 유럽 전역에 카페가 생겨나고 있는데 커피 원료의 공급원은 예멘뿐이어서 커피 가격은 급등하게 되었다. 예멘의 모카는 홍해에 접해 있는 항구였고 이 때문에 아라비아에서 생산되는 커피를 항구 이름을 따서 '모카' 커피라 불렀다.

커피를 음료로써 군대에 최초로 보급한 사람은 나폴레옹이다. 왜 나폴레옹은 군대에 커피를 보급하려고 했을까? 이유는 커피가 졸음을 쫓고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음료이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은 전쟁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항상 진심이었다. 식량 보급을 위해 방부제 없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통조림 개발과 군복 생산을 위한 직물 기계의 개량, 그리고 대량의 커피를 보급하기 위해 커피산업을 발전시킨 것이 그 결과이다.

제국주의 시기 유럽 국가들은 식민지에서 커피 플랜테이션을 확대해 나갔다. 네덜란드의 상업자본가들은 커피 원두를 사서 판매하는 것보다 직접 생산하는 것이 이익이 크다는 점을 간파하고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 커피나무를 심어 생산하였다. '식민지 커피'로 시작한 자바 커피의 탄생이다. 열강의 식민지에서 플랜테이션 커피 농업이 진행되었고, 이에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는 오늘날 최대 커피 수출국이 될 수 있었다.

커피는 식사를 마무리하는 좋은 음료이다. 쓴맛과 신맛, 풍부한 감칠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카페인 분자가 풍미로 작용해 후각을 자극하여 쾌감을 불러일으킨다. 커피 원두는 로스팅이란 가열 단계를 거쳐 쉽게 부서지고 향을 방출하도록 변모된다. 로스팅한 통 커피콩은 상온에서는 2주, 냉동실에서 2개월 동안 보관이 가능하다. 그 이상이면 퀴퀴한 냄새가 날 수 있다. 커피는 음료라는 가치를 넘어 다른 이들과 함께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함께하고 싶은 이와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보다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출처: pixabay

글 소나영 (광주아트가이드 편집위원)

동서양 그랜드투어

색의 광학적 혼합: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소나영 (광주아트가이드 편집위원)

어린 시절 미술과 글쓰기를 좋아했다. 꿈을 잊고 지낼 무렵, 미술에 관한 글쓰기를 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2016년부터 조선대학교에서 미술 이론을 가르치고 있으며, 광주아트가이드 편집위원으로 '작가탐방' 코너에 매달 글을 기고하고 있다. 전시기획자와 미술비평가로도 활동 중이다.

한가롭게 햇볕이 내리쬐는 일요일 오후,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면서 여유를 즐기고 싶다는 상상을 해본다. 문득 떠오르는 작품은 신인상주의 대표 화가, 조르주 쇠라(Georges Seurat, 1859-1891)의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이다. 누구나 봤을 법한 작품이지만 점묘법*(pointillism)으로 그려졌다는 사실 외엔, 의외로 이 그림이 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림을 살펴보면 중절모를 쓴 남성, 당시 유행했던 의상과 장신구로 치장해 한껏 멋을 낸 여성, 아이들과 반려동물도 보인다. 19세기 파리 사람들의 여가와 한가로운 일상을 담아낸 그림이다. 이 시기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큰 변화가 진행되면서 여가 문화가 증진되었던 때다. '그랑드 자트 섬'은 프랑스 센 강 주변의 섬으로 당시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들었던 휴식처였다. 따라서 이 그림은 19세기 변화하는 프랑스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자, 당시 근대 계급사회의 이면을 풍자하고 있는 그림으로도 읽힌다. 수수께끼처럼 그림 속에 숨겨진 시대적 배경에 주목해보면 흥미롭다. 화면의 오른편 풍성한 치마를 입은 여성 앞에 원숭이가 꼬리를 세운 채 서 있다. 원숭이는 당시에 유행했던 애완동물이었다. 또한, '방탕'을 상징하고 있었고 특히 암컷 원숭이는 당대 프랑스 속어로 '매춘'을 의미했다. 실제로 이곳 그랑드 자트 섬은 불륜과 매춘이 성행하던 곳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그림은 특유의 고요하고 정적인 분위기를 풍길까?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멈춰있는 동작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림 속 인물들은 진짜 사람이라기보다는 기하학적 원통형의 조형물 같아 보인다. 이 그림이 묘하게 매력 있는 것은 이러한 분위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 그림 그릴 때 붓의 끝이나 브러시(Brush) 등으로 찍은 다양한 색의 작은 점을 이용하여 시각적 혼색을 만드는 기법

쇠라는 이 풍경을 담아내기 위해 그랑드 자트 섬을 아주 여러 번 방문해 사람들을 관찰하고 수많은 스케치를 남겼다.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작업실에서 새롭게 재배치하여 완성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60여 회의 습작을 그렸다. 그는 완벽한 한 점의 그림을 위해 인물 연구, 배치, 구성 등 여러 번의 실험을 거쳤다.

그는 마치 그림이라는 무대에 인물들을 배치하듯 그림의 배경을 먼저 완성한 뒤, 그 위에 인물들을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 끝에 완벽한 자리를 찾아냈다. 결국, 이 그림은 쇠라가 직접 봤던 풍경을 그대로 묘사한 그림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구도와 인물들을 재배치하여 치밀하게 계산한 그림인 셈이다.

무엇보다도 이 그림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색점들이다. 쇠라는 선이 아니라 '점'으로 색과 형체를 표현했다. 그는 당시 19세기를 주도하며 유행했던 광학 이론과 색채 이론의 영향을 받아 그것을 자신의 그림에 적용하고자 했다.

보통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을 팔레트에서 섞어서 원하는 색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그러나 쇠라는 그러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광학적 혼합' 혹은 '시각적 혼색'이라는 방식을 이용했다. 그는 프랑스의 화학자이자 색채 이론가인 슈브뢸(Michel Eugène Chevreul)의 영향으로 보색 관계의 색이 병치되어 있으면 두 색이 모두 더 선명해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쇠라는 당시 미국의 화가이자 색채학자인 오그덴 루드(Ogden Rood)의 영향을 받아 색이 캔버스에서 섞이는 것보다는 우리 눈에서 섞일 때 더 또렷하고 빛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믿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는 보라색을 만들기 위해서 빨강과 파랑 물감을 섞어서 사용하지만, 쇠라는 빨간 점과 파란 점을 병치시켜 멀리서 보면 보라색으로 보이는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그는 약 2×3m의 큰 캔버스에 수백 만개의 색점을 무수히 찍어 표현함으로써 실제로 물감을 섞어서 칠하는 것보다 훨씬 또렷하고 강렬하게 보이는 효과를 창출했다. 또한, 이전의 인상주의 화가들이 순간의 인상을 빠르게 묘사함으로써 잃어버린 사물의 형체를 지켜내고 화면의 조형 질서를 다시 구축하고자 했다. 쇠라는 안타깝게도 만 31세의 나이로 요절했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함으로써 색채가 시각에 미치는 작용을 실험하고, 19세기 현대미술사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조르주 쇠라,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1884-1886년, Oil on canvas, 207.5×308cm,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소장

한 달, 한 권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이 고민이라면 『인간관계론』

정효숙 작가

책을 좋아하는 평범한 직장인. 꾸준히 올린 기록이 쌓여 네이버 도서 인플루언서(랑이씨)가 되고, 2023년 10월에는 도서 부문 이달의 블로그에 선정되었다. 책 하나 내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누구든지 글을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싶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이번 5월호에서는 자기계발서인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으로 찾아왔습니다. 한 분야만 파고드는 독서도 좋지만, 저는 다양한 분야를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앞서 에세이와 고전 소설로 책에 흥미를 붙였다면 이번에는 자기계발 분야로 보다 실용적인 독서를 해볼까 해요.

시중에는 자기계발 서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많은 책들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럴 때 그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책, 그리고 오랫동안 사랑받는 책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딱 그런 책입니다.

저자 데일 카네기는 1912년 YMCA에서 말하기 수업을 열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수강생들이 '말하기'보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고 인간관계 수업을 열기 시작하죠. 이 수업은 후에 카네기 연구소 설립으로 이어집니다. 본인의 연구와 강좌 내용을 정리한 책이 바로 『인간관계론』이에요. 이 책은 1936년 출간되어 전 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90년 동안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을까요? 책의 이름 그대로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두었다고 보면 돼요. 사람을 다루는 방법,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방법,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 사람을 바꾸는 방법 등 실용적인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도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풍부한 예시를 함께 들어 이해하기도 쉽고요. 또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요점을 정리해 줘서 중요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내용을 잘 정리한 자기계발 분야의 정석 같은 책입니다.

책에 나온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사람을 다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간관계론』은 딱 세 가지로 정리해 줍니다. 첫째,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둘째,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셋째, 다른 사람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데일 카네기는 비난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극악무도한 살인마, 가장 잔인했던 갱단 두목도 자신을 향한 비난에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정당화했다고 하네요. 다른 예시로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명인 에이브러햄 링컨은 다른 이를 함부로 비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북전쟁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한 장군에게도 그의 입장을 이해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비난의 방식보다는 이해가 우선이라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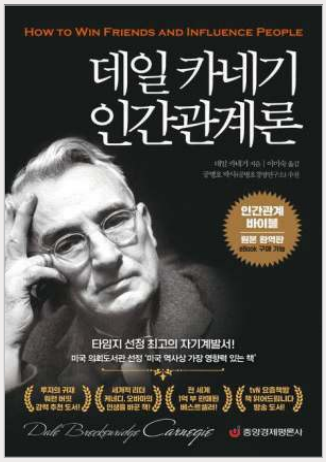
또한, 카네기는 다른 이에게 그가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합니다. 카네기는 야망을 죽이는 건 상관의 비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은 바로 인정과 격려이며 진심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이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네기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싶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해보라고 해요. 당신의 관점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의 예시를 듭니다. "어떻게 딸아이가 스스로 아침을 먹고 싶어 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 어린아이는 엄마 흉내를 좋아해서 어른처럼 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아이에게 아침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아이가 음식을 젓고 있을 때 아빠가 부엌에 들어갔지요. 그러자 아이는 "내가 오늘 아침 시리얼을 만들고 있는 중이야!"라고 말하며 두 그릇이나 먹었대요.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사실 저도 『인간관계론』을 보기 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책의 명성,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되었다는 이력, 데일 카네기의 얼굴이 실린 표지에 괜히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막상 책을 펴보니, 단 며칠 만에 완독할 수 있을 정도로 술술 읽히는 것 있죠. 괜히 혼자 겁먹었던 거죠!

자기계발서의 장점은 무궁무진합니다. 성공의 비결을 얻을 수도 있고, 내 고민을 해결할 수도 있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울 수도 있죠. 물론 단점도 있어요. 『인간관계론』의 경우 출간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적절히 취사선택하시며 읽으시면 된답니다.

만약 『인간관계론』이 마음에 드셨다면, 데일 카네기의 다른 저서 『자기관리론』과 『성공대화론』도 읽어보세요. 혹은 자기계발 분야의 베스트셀러 중에서, 가장 고민이었던 내용을 다룬 책을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아. 이래서 책을 읽는구나! 하는 인생 책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달도 즐거운 독서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인간관계론』
데일 카네기 지음 | 중앙경제평론사 펴냄

영화로운 나날

「외계+인」 가장 한국적인 SF 판타지

정송희 영화전문블로거

어릴 때부터 영화와 음악을 열렬하게 좋아한 끝에 부산대학교방송국의 PD를 거쳐 부산 KBS-FM에서 작가를 했고, 대종상영화제에서 예선심사를 맡았었다. 지금은 '송이동이'라는 필명으로 영화 평론을 쓰는 네이버 영화전문블로거·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다.

「도둑들」과 「전우치전」에서 개성 넘치는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재미와 오락성을 가미해 풀어내며 재능을 발휘한 최동훈 감독이 완성한 「외계+인」 시리즈는 고려시대와 현대를 오가는 실험적이고 방대한 세계관을 구현하여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지만, 외계인과 전통적인 판타지 요소인 도술이 혼재하는 흥미로운 관점을 가진 한국적인 SF 판타지입니다.

「외계+인」 시리즈의 세계관은 아주 오래전 외계인들이 10년마다 한 번씩 지구로 찾아와 그들의 죄수를 인간의 몸에 가두어 왔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을 선택한 까닭은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봉인하기 쉬워서라고 합니다. 외계인 '가드'와 '썬더'는 인간의 몸에 가둔 외계인 죄수를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가끔 죄수들이 인간의 몸에서 탈출할 때면 가드는 '신검'으로 시간여행을 해서 특정 장소에 봉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지구로 호송된 죄수들을 인간의 몸에 가두려던 중 죄수의 우두머리 '설계자'가 '하바'라는 물질을 퍼뜨려 지구정복의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가드와 썬더는 설계자를 봉인하려고 신검을 이용해 고려시대로 들어가는데, 10년 전 고려에서 데려와 양육해오던 '이안'이 함께 하게 되면서 일이 복잡하게 얽혀버립니다. 「외계+인」의 이야기 뼈대는 등장인물들이 신검을 차지하기 위해 고려와 현대를 오가며 벌이는 시간여행이라는 '도전'과, 변신과 분신의 도술로 대변되는 '모험'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검으로 시간여행을 하며 탈출한 죄수들을 잡으러 다니는 가드와 썬더는 인간과 로봇을 오가거나 좌왕우왕의 고양이 변신을 통해 「외계+인」 세계관에서 중심역할을 합니다. 그들에게 키워진 이안은 시간여행과 변신 능력은 없지만 고려와 현대에서 각각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장했으며, 얼치기 도사 '무륵', 삼각산의 두 신선 '청운과 흑설'은 변신과

분신 능력을 통해 가드와 썬더에게 힘을 실어주고, 조상과 후손이라는 끈으로 연결된 '능파'와 '민개인'이 가드와 썬더의 편에서 선(善)의 축을 담당합니다. 설계자는 '자장'이라는 밀본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몸에 기생하면서 진짜 모습을 감추는 능력으로 악(惡)의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체계와 질서를 유지하려는 선과 시스템의 파괴를 원하는 악이 충돌해 싸우는 과정에서 선과 악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변화의 결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선의 축은 주로 변신과 분신의 도술로 악에 맞서거나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고 조상에서 후손으로 이어지며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악의 축은 나약한 인간을 숙주로 옮겨 다니며 기생하고 최후에는 자장이라는 '가면'을 써서 거짓과 위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 용기, 정직, 성실은 덕(德)에 속하고 이가 결여된 상태를 악덕(惡德)이라고 보는 것처럼 본체의 품성(Moral Character)은 그대로 두고 있되, 선에서 선으로 변화는 가능하나 악으로의 변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2부에서는 빌런의 존재에 반전을 줍니다. 도사와 인간, 가드와 썬더 모두가 현재로 돌아오고 힘을 합해서 빌런과 싸우는 이유로 '뜰 앞의 잣나무'라는 화두를 던져주며 「외계+인」 시리즈에 방점을 찍습니다. '뜰 앞의 잣나무'는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에 대해 묻자 진리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뜰 앞에 잣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처럼 있어야 할 곳에 제대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유래합니다. 삶과 내면, 그 어디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제 할 일을 다 해내지 못하며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는 것은 큰 잘못이 될 수 있으니 열심히 살아가며 각성하면 그것이 진리이고 달마, 가드와 썬더, 무륵과 이안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비록 인간이 나약한 존재라서 외계인 죄수들을 봉인하는 오브제로 쓰였지만 인간의 각성과 깨달음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영화 「외계+인」 시리즈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계+인」은 SF 장르로 봤을 때 아직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만, 단순한 에일리언의 SF적 환상을 펼친 이야기가 아니라 외계인과 인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 「외계+인」이라는 제목을 갖게 된 점과 '도술'이라는 흥미로운 모티브로 가장 한국적인 SF 판타지 영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외계+인」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외계+인」 1부

「외계+인」 2부

글 대위 김수용(공군본부 정신전력과) 그림 MAVIN(정오성) 작가

생각하는 그림

같은 말에도 번역이 필요합니다

1896년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한다는 의식을 가졌던 「독립신문」은 파격적인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바로, 왕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 이름 뒤에 호칭인 '씨'를 붙인 것이죠. 독립신문을 창간한 서재필 박사부터 제대로 된 이름도 가지지 못했던 여성들에게도 씨를 붙여 존대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씨에 대해 '성년이 된 사람의 성이나 성명, 이름 아래에 쓰며,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로 정의합니다. 즉, 이름 뒤에 붙는 씨는 타인을 높이는 하나의 존칭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씨는 높이는 표현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신문을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에게 씨를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성에 붙여 부르는 씨는 오히려 불쾌한 느낌이 들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김모 씨'라고 지칭되면 왠지 범죄자가 된 것 같아 기분이 나빠지곤 합니다. 지금은 존칭의 의미로 '님'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일상 속 호칭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약 70% 정도가 이름이나 직함 뒤에 '님'을 붙이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20세기 존칭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씨는 이제 그 의미가 옅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어의 의미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언어는 당시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면, 사용하는 언어 역시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가 변화하는 과정은 그다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누군가는 기존 언어의 의미를 고수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기존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새로운 의미가 익숙합니다. 씨에서 님으로 바뀐 존칭의 언어는 세대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존칭으로 생각되었던 씨가 님이 존칭인 세대에는 하대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시대와 문화에 따라 의미와 용례가 변하는 언어에 의한 갈등은 사실 나와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변한 말을 쓰는 사람과 예전대로 사용하는 사람 간의 '엉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이 엉켰을 때 엉킨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떤 단어에서 엉켰는지 서로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엉킨 지점으로 돌아갈 때, 서로가 마주하고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공군인 여러분! 똑같은 우리말에도 번역이 필요합니다. 세대 간의 언어 차이를 이해하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공군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림 MAVIN(정오성) 작가

동화 같은 색채와 따뜻한 표현기법과 내용을 그리려고 노력하는 일러스트레이터, 2018년부터 MAVIN(마빈)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이다. 세스코&무신사 협조 전시 참여, 스트레이키즈 뮤직비디오 아트워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인스타그램 @os.mavin)

글 상병 문웅빈(제16전투비행단 공병대대)

책 읽는 공군

우리는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가?

상병 문웅빈

"여러분은 '인간의 생명'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란 말을 듣곤 하는데,
실제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3일 동안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란 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3일이라는 시간을 부여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남은 방학 3일', '3일의 연휴' 등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시간들을 보람차게, 가치 있게 사용했을까요? 이 책에서는 그러한 우리의 경험을 비틀어서 깨달을 점을 시사해줍니다.

주인공은 무의미한 삶을 이어가던 중, 자신의 남은 수명을 구매해주는 가게에 대해 알게 됩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을 남기고 모든 수명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주인공은 그 돈으로 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때, 3개월의 시간 동안 가게에서 붙여준 감시역의 여자와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감시역들은 가게에 빚이 있어, 감시역을 맡고 있으며 주인공은 그러한 여자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감시역의 빚을 갚아주고자 자신의 남은 삶의 가치를 높여, 판매한 후 여자의 빚을 갚아주기로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감시역 여자를 만나 남은 인생 3개월 동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주인공은 다시 한번 수명을 구매하는 가게에 찾아가게 되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남은 3개월간 그렸던 그림이 주인공의 사후에 후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신의 남은 3개월의 수명의 가치는 감시역의 빚을 갚고도 남을 정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주인공은 놀라지도 않으며, 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3일을 남겨놓고 모두 팔아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되지만,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이를 위해 사랑을 포기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남은 3일을 무엇을 하며 지낼지 고민하던 중 감시역할을 맡은 여주인공도 자신의 수명을 3일 남겨놓고 모두 판매하고 주인공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에게 남은 3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내는 3일의 시간과는 농도가 다를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의 속도마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무언인가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가치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절실히 바라는 것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길 바랍니다.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 역시 언젠가는 흐르게 될 것입니다. 남은 3일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사랑하는 사람과 보낼지, 군 생활이 끝나고 그 시간을 어떻게 기억할지는 각자에게 달려있습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의미있게 청춘의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길 바랍니다.

「3일간의 행복」
미야키 스가루 지음 | 영상출판미디어 펴냄

글 상병 김훈(제18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환영합니다, 제18전투비행단입니다

Date . 2024 / 03 / 23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곳은 사회와 군대의 연결고리, 강릉기지 면회실입니다. 한반도 동북부에 위치하여 떠오르는 태양을 제일 이르게 맞이하는 제18전투비행단,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아침을 여는 면회실입니다.

근무자인 저도 눈을 비비며 정신을 겨우 바로잡는 휴일 아침, 일찍부터 한껏 꾸미고 그리운 사람을 기다리는 애인,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을 응원하며 한 명 두 명 찾아온 친구들이 환한 반가움으로 면회실을 밝힙니다. 몇 주 후면 만개할 벚꽃을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청춘들이지만, 나라 지킨다는 사명이 우선이기에 이곳에서 서로의 사랑을 전합니다. 전투복과 예쁘고 멋진 사복을 입고 눈빛을 마주하는 모습을 보면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드라마들을 쓰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힘은 참 대단해서 그들의 얽히고 설킨 자세한 이야기를 모르는 저에게도 부러움을 가지게 하고 입가엔 미소가 번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가끔 그 미소가 붉은 눈시울로 바뀔 만큼 격한 감정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직 훈련단의 제식과 특유의 눈치 보는 두리번거림이 '저 신병입니다.' 하는 소개를 대신하는 병사와 면회 개시 한참 전부터 애타게 부대 안을 들여다보려 애쓰는 부모님이 만나는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 속도나 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오랜만에 아들을 본 부모님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포옹입니다. 특히, 평소에 무뚝뚝했을지 모르는 아버님들도 하나같이 아들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매만질 때면 마음 한구석부터 '우리 모두는 군인이면서 동시에 한 가정의 아들이다. 멋지고 떳떳하게, 그리고 서로를 소중히 하며 살자.'는 생각이 솟아납니다. 그런 날이면 하번 후에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며 잠시 내가 소홀했던 것은 없는지 돌아보곤 합니다.

어느새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는 논밭과 그 앞을 지나가는 택시와 차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성이지만 그 밖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아쉬움을 이곳에서나마 달랬기를 바랍니다. 제18전투비행단 면회실, 이제는 문 닫을 시간입니다. 헤어질 때의 아쉬움이 있기에, 다시 만날 때의 기다림과 두근거림은 풍선처럼 부풀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어느 아침이든 열려 있을 이곳에서 또 뵙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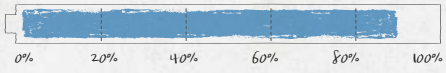
오늘의 감정

MEMO

뜨겁게 사랑하며,
소중히 살아가자.

월간 공군

오늘 하루 만족도



글 월간 공군 편집실

편집실입니다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

월간 공군 독자 여러분께서는 'Here's looking at you, kid.'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말은 영화 「카사블랑카」 속에서 주인공인 '릭'이 여자 주인공 '엘사'에게 술을 한 잔 권하며 하는 대사입니다. 영어 단어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여기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정도로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대사는 우리에게 다르게 해석되어 알려져 있습니다.

출처: 게티이미지

"그대 눈동자에 건배"

각각의 단어가 가진 고유의 의미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대사의 맥락을 정확히 반영한 멋진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말을 찾아볼까요? 2007년 개봉한 음악 영화 중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영어 원제는 'Musics & Lyrics'입니다. 이를 단순히 직역하면 '음악과 가사'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과 가사'라는 말보다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이라는 말은 우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영화의 내용에 대한 좀 더 직관적인 유추가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렇듯 잘된 번역은 원어가 담지 못한 의미까지 우리에게 전달해주며 해당 상황과 맥락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단어가 가진 사전적인 의미만을 생각했다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러한 멋진 번역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맥락 속에서 언어를 이해하고 언어가 가진 뜻 너머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가졌기에 이런 번역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관점에 얽매이지 않는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은 비단 번역뿐 아니라 우리 실생활의 많은 곳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여겨졌던 일이 다른 시각에서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하고 좋은 일로 받아들여졌던 상황이 다른 측면에서는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꽃이 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름다운 꽃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꽃과는 다른 아름다움을 가진 녹음을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꽃이 진 자리에 맺히는 열매를 얻을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는 그 상황이 마냥 아쉬운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듯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으며 다양한 시각으로 상황을 인식하는 것은 사건을 보다 풍부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월간 『공군』 독자 여러분! 나에게 온 아침이 누군가에게는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보다 넓은 시야로 그리고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소리

고건

koe11**@naver.com

안녕하세요. 이번 월간 『공군』 4월호에서는 엘리펀트 워크에 대한 기사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특히 이번 훈련은 퇴역을 앞둔 F-4E 팬텀이 참여한 마지막 훈련이었기에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효율적인 협업과 조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이며 대규모 장비와 인력을 움직이는 이동 훈련은 군대의 전투력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훈련이지요. 항상 우리나라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AF

공군을 향한 응원과 성원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늘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sunhofe**@kakao.com

보라매공원에 자주 놀러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성무탑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성무탑이 참 세련되고 예쁘단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공군사관학교 마크 속 14개의 별, 한반도의 14개의 도를 상징하고 승리를 나타내는 V자 형이라니, 의미 또한 너무 멋지네요. 앞으로 성무탑을 볼 때마다 생각이 많이 날 것 같네요^^

AF

월간 『공군』에서는 공군과 관련된 예술품을 소개하는 특집을 격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술품 속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들을 독자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도원

dowonhyun05**@gmail.com

F-4 팬텀의 도입 에피소드부터 퇴역하게 된 순간까지의 값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미군과 견주어도 지지 않을, 박종권 예비역 소장님 같은 멋진 조종사분들이 있기에 우리나라 공군이 강군으로 거듭할 수 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월간 『공군』 덕분에 민간에선 알 수 없는 소식을 들을 수 있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이겨가며 비행하며 영공을 수호해 주시는 공군 조종사, 많은 장병들께 매번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AF

월간 『공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도원님께서 보여주신 공군에 대한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군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접 수 방 법

마음의 소리 월간 『공군』 홈페이지(afzine.co.kr) 〈독자의견〉에 업로드
매월 12일까지 / 250자 내외 /
기념품 수령을 위한 주소·연락처 기재 필수

책 읽는 공군 /공군인의 하루 공백 포함 1,200자/1,100자 내외, 매월 12일까지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후 전자우편 전송
(인트라넷: uk0319@af.mil / 인터넷: afzine@korea.kr)

구독문의 QR코드 독자의견 QR코드

월간

공군

551

ISSN 2383-5524

05 >

9 772383 552001

발 간 등 록 번 호
38-1600006-000001-06